학자를 만나다

신규탁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

# 전통 강원 교육의 현대화로 불자 교육 '재도약'




신규탁 이사장에게 교육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돕는 일이다. 신 이사장은 "경전은 종류가 많고,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도 다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넓게 펼쳐진 그물 속에서 각자가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라도 만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규탁 이사장이 〈화엄경 초역 해설〉을 출간하고, 월운 스님에게 책을 전달하는 모습.




2025년 3월 동산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신규탁 이사장. 취임식 행사 이후 기념촬영 모습.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재가불자들이 오랜 시간 불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한 축을 맡아 온 곳이다. 그러나 불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동안 숨을 고르며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변화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그 전환점에 신규탁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이 서 있다.

신규탁 이사장은 2025년 동산불교대학 제3대 학장으로 취임해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이어 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으로 추대돼 오는 3월부터 교육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게 됐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동산불교대학은 6년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학교를 세우라는 과제를 받은 셈이지요.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조직을 다시 움직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교 교육은 결국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어 가야 할 일입니다."

동산반야회는 1982년 재가자들이 자발적인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다. 당시 사찰 법회는 의례와 기도 중심이었고,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설법은 드물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갈증에 무진장 대종사를 모시고 시작한 공부는 1992년 동산불교대학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재가불자를 위한 교육 제도와 법회를 마련하며 35여 년 넘게 운영됐다. 2년 과정의 불교대학과 3년 과정의 불교대학원을 통해 56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교계 대표 재가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강좌가 전면 중단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신규탁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할 해법을 동산반야회의 뿌리에서 찾고자 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조선 이후 이어져 온 강원(講院) 교육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선종의 사자상승과 강원의 교과과정은 오랫동안 한국불교의 기반을 형성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 그 맥락이 점차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신 이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교육은 흐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비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준비 중인 것이 '한글 불교전문강원'이다. 한문 경전 중심의 전통 강원 교육을 한글로 풀어내 현대인에게 맞는 재가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좌는 전통 강원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체계성을 유지해, 일반 불자들도 전통 불교 교육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은 총 6학기,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일반과정은 한글 교재를 중심으로 경전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심화과정은 원문 대조와 주석서 강독을 통해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두 과정 모두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 전통 강원의 주요 교과목을 2년에 걸쳐 완독하도록 설계됐는데, 강의 상당 부분은 신규탁 이사장이 직접 맡는다.




신규탁 이사장이 기획·출간한 〈화엄학총서〉. '한글 불교전문강원' 강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6년간 중단**
**현대인 패턴 맞춰 한글로 해석**
**〈화엄학총서〉 11권 중 9권 출간**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면 충분"**
**재정 투명 · 안정적 운영이 목표**

그는 이미 강의에서 활용할 〈화엄학총서〉 11권을 기획해 현재 9권을 출간했으며, 나머지 2권도 올해 상반기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전통 교재를 한글로 풀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원문을 함께 실어 해석의 정확성을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신 이사장에게 교육의 목표는 분명하다.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는 '장대교망 녹인천어(長大教網 綠引千魚)'를 빗대 "경전은 종류가 많고,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도 다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넓게 펼쳐진 그물 속에서 각자가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라도 만난다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교과목은 그물코 중 하나다. 그렇게 고해로부터 건져져 살아갈 길을 깨닫고 일생을 평안히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 포교 방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기존 음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법회는 이미 현대 생활 리듬에 맞춰 양력 요일별 법회로 개편해 운영 중이며, 전체 의례 역시 1시간 내외로 압축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례는 본질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다. 예경·공양·참회·발원이 담기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처님 말씀과 조사어록의 자의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수행 체험에 의한 해석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관적이지 않으면 의미도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명확한 교육 기준을 세우고, 각 사찰의 정기 법회가 정상화돼 재가 불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금의 교육관을 갖게 된 데에는 봉선사 강백 월운 스님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77년 봉선사를 찾아 월운 스님으로부터 경학(經學)을 배우며 불교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일어났고, 이후 약 2년 동안 머물며 학문에 몰두했다. 한자로 된 경전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경·론·소·초 등 방대한 불교 문헌을 찾아가며 학문적 기반을 다져 갔다. 월운 스님은 2023년 6월 입적했지만, 그는 입적 3일 전까지도 스님을 찾아뵈며 가르침을 나눴다.

특히 월운 스님이 남긴 게문 '탈연독초공겁외 불망도중괘구의(脫然獨超空劫外 不忘途中掛垢衣)'는 지금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홀연히 모든 것을 벗어나 공겁을 초월하더라도, 때 묻은 옷을 걸쳤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나름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과 소박함을 잃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그는 앞으로도 스님에게 배운 가르침과 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재정 관리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이끌며 체계적인 교육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며 "삼보에 귀의한 교육 단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해 배움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수 천번의 내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만 비교시 귀 법당의 마이크 가격이 수 백만원이라도 본사 마이크와 비교시 놀라운 차이 확인!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가격 50만원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0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